

학 문 과 윤 리

金 錫 穆

(전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

自古로 人間을 살아 남으려는 「生の 意慾」(will-to-live)과 잘 살아보려는 「價値創造 意慾」(will-to-create)을 內包한 存在라 한다. 特別히 알베르트·슈바이처같은 思想家가 人間을 그렇게 洞察하였다. 人間의 意慾은 안으로 「求心的인 方向」(Centripetal)과 밖으로 「遠心的인 方向」(Centrifugal)을 取한다고 한다. 그것을 意志의 指向性이라 한다.

사람은 自己의 意慾속에서 추구쳐 오르는 학문적인 情熱과 「문화창조 능력」(Cultural ability)을 가지고 宇宙 自然을 開拓하여 一切 自然科學的인 價値와 人間이 살고 있는 社會環境을 開發하여 一切 社會科學的인 價値와 人間自身の 內面的인 世界를 깊이 省察하여 一切 人文科學的인 價値를 창조해 놓았다.

宇宙學, 天體物理學, 地質學, 原子科學, 化學, 生物學, 醫學, 生理學, 衛生學, 保健學, 看護學 등……은 自然科學이라 할 것이고, 社會學, 經濟學, 政治學, 法律學, 社會心理學, 社會教育學 등……은 社會科學이라 할 것이고, 文學, 詩美學, 哲學, 道德學 등……은 人文科學이라 할 것이다.

自然科學에서는 모든 自然的인 事實을 事實대로 보아 그 事實 속에 주어저 있는 意味(meaning)와 原理原則을 밝히 보여 주었고, 社會科學에서는 歷史的, 社會的인 事實에 對한 情報을 科學的으로 밝혀 주려 하였고, 人文科學에서는 哲學에서나 文學에서나 그것들이 다 人生의 意義(signification)와 眞實을 表現하기에 極致를 달리었다.

우리는 自然科學, 社會科學, 人文科學 등이 모든 科學을 學問이란 말로 묶을 수 있다. 그래

서 科學한다는 말은 學問한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

사람은 이와같이 自己에게 주어진 科學的인 知能과 審美的인 藝能과 身體的인 體能 등등은 가지 能力으로서의 技能(ability)을 發揮하고 開拓하여 偉大한 文化 創造活動의 一環으로서 學問價値 即 科學價値와 예술적인 가치를 창조해 놓았다.

價値를 論理化, 體系化해 놓은 것을 知識 或은 學識이라 한다. 그것을 學問이란 말로 代用하는 수도 있다. 知識은 사람에게 큰 힘으로 되어 주었다. 그래서 푸란시스·배콘과 같은 사람은 知識은 곧 힘이라고 (knowledge is power) 說破하였다.

事物의 意味와 理致를 밝히고 人生의 意義와 眞理를 淸명함에 卓越한 能力과 知識을 가진 碩學들과 그들의 업적을 이어받은 知識人, 學者들의 研究와 眞理의 殿堂인 大學과 世界的인 研究機關들의 協同的인 研究活動에 依하여 學問의 世界는 엄청난 進歩와 發達을 보게 되었다.

研究에 研究를 쌓아 올려 知識의 世界가 專門的으로 分化되고 또 深化되었다. 專門的인 知識일 수록 學者들 間에서도 서로 理解할 수 없을 程度로 發展하고, 特殊한 技術일 수록 技術者들이 서로 交換할 수 없을 程度로 發達되었다. 그것은 그 만큼 사람의 科學的인 知識과 技術的인 힘의 영역이 擴大되고 넓어지고 延長되었음을 意味한 것이다. 것처럼 엄청난 發達된 科學的인 知識과 技術的으로 機械化된 힘을 가지고 時間과 空間의 距離를 最大限으로 短縮시키고 生活을 能率的으로 迅速하고 便利하고 安樂하게 營爲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몇 百年동안의 努力과 研究를 쌓아 가지고서도 알아 낼까 말까 하던 知識이 오늘날에는 原子力化한 能率과 技術을 가지고 短時間 안에 곧 밝혀낼 수 있는 知識으로 成長發展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三十餘年前만 하여도 到底히 꿈도 꿀 수 없었던 建設作業을 오늘날에는 곧 해내치울 수 있게 되었고, 地球안에서도 여러 날 여러 달이 걸려야 來往할 수 있던 距離를 오늘날에는 一日圈內的 空路網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原始的인 國土를 開發하여 工場都市를 建設하고, 工業的인 經濟體制를 導入하여 産業社會를 이룩하고, 앞으로는 한걸음 더 나아가 豊饒한 福祉社會의 建設을 展望할 수 있게 되었다.

그와 같이 現代人은 知識과 技術의 힘을 가지고 技能의 面으로는 훌륭하게 發達된 人間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現代人은 그의 知識과 技術의 힘을 活用하여 훌륭한 生活을 營爲하고 즐길 수 있는 「나」로 된 有能한 人間으로 되었다. 이 때에 「나」를 主體 即 Subject라 하고 내 知識과 技術로서의 技能(ability)을 predieate라 한다면 現代人에 있어서 predieate는 굉장히 發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의 主體的인 subject의 모습은 어찌지 의심스러운 存在라 알을 수 없을 것 같다. predieate가 굉장히 發達되었다 함은 現代人의 知識과 技術로서의 技能의 面으로는 엄청나게 훌륭해졌다 함을 의미한 말이다.

現代人은 大學的인 研究를 쌓아 올려 知的 水準이 높아진 知識人, 學士, 碩士, 博士로 될 수 있고, 敎育이 높고 趣味가 多樣한 文化人으로 될 수 있었다. 優秀해진 技能의 힘으로는 文化價値를 창조하고, 豊富하고도 幸福된 生活을 營爲해 나아갈 수 있는 可能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의 主體的인 人格으로서의 「나」라는 사람됨에 이르러서는 아직도 의심스러운 點, 좋지 못한 點, 새롭게 開拓되지 않으면 안될 點을 그냥 남겨가지고 있다. 이것이 現代文化人에 있어서 가장 문제點으로 되어 있는 문제이다. 거기에 倫理的인 문제가 남는다.

× × ×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들은 모든 「나」로서의 「너」, 「나」들의 相互關係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存在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옛날 희랍의 哲學者 아리스토텔레스는 人間을

poiesis的인 存在인 同時에 praxis的인 存在라 하였다.

「포이에시스」는 가치창조 활동의 객觀적인 결과로 드러난 가치를 의미한 말이고, 「프락시스」는 가치창조 活動을 하는 主體者로서의 「내」가 그러한 「너」 即 「남」에게 손해를 끼쳐주는 일을 하느냐? 아니냐? 하는 내 主體的인 가치를 의미한 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과의 關係를 옳게 취하느냐? 不義하게 취하느냐? 하는 義不義의 倫理的인 가치를 의미한 말이다. 칸트는 「포이에시스」를 기술적인 실천이라 하고, 「프락시스」를 윤리적인 실천이라 하였다.

문화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能力을 소유한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남에게 손해를 끼쳐줄 때에는 도덕적으로 無價値하고 倫理的으로 옳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윤리의 문제는 문화가치 창조 活動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知識과 技能이 優秀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치 창조 活動을 잘할 수 있는 내가 남과의 關係를 옳게 취하느냐 不義하게 취하느냐 하는 여하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문제인 것이다.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人間은 求心的인 方向을 取할 수도 있고 遠心的인 方向을 取할 수도 있는 存在이다. 人間이 求心的인 方向을 취할 때에는 에고이스틱(egoistic)한 自己本位的인 나로 될 수도 있고 遠心的인 方向을 취할 때에는 開放的인 協同的인 나로 될 수도 있다. 그러나 人間關係에 있어서 사람이 개방적인 협동적인 나로 되기 보다는 오히려 에고이스틱한 자기본위적인 나로 되기가 쉽다.

에고이스틱한 사람은 自己의 이기적인 利害를 만족하기 위하여 남을 속이며 欺瞞的으로 되고, 自己를 本位로 하여 남을 排斥하는 排他的인 사람으로 되기 쉽다. 그러한 사람은 남을 侮害하고 모략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침범하는 일을 잘하게 된다. 知識과 學問이 고매하고, 文化價値 창조 能力이 아무리 우수해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와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된 人을 道德的으로 참되고 의로워진 眞正한 文化人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知識과 能力이 優秀해지면 有名한 사람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의 主體性이 不實하고 無責任하다면 그를 誠實하고 참된 사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한 人間型을 가장 非道德的인 非人道的인

人間이라 한다.

대개 現代人이 文化價値 창조적인 技能의 面으로는 엄청나게 發達되었으나 人道的인 主體性的 面으로는 조금도 進歩되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한다. 主體性的의 進歩라 함은 사람의 에고이스틱한 利己主義的인 「나」로서의 모습이 解消되고 人格的으로 純化統一되어 誠實해진 「나」로서의 모습으로 成長變化됨을 意味한다.

결국 倫理的인 善惡의 문제는 文化創造 能力의 發達으로써 解決지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全的인 人間으로서의 「너」, 「나」간의 關係를 올게 取하느냐 아니냐 하는 主體性的의 方向如何에 따라서 決定지어질 수 있는 문제인 것을 強調해 두고 싶다.

個人的인 利己主義에서 보다는 國民的인 集團的인 利己主義에서 不義란 과제와 不法한 侵略과 僞善的인 政治問題가 더욱 가혹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解決하기가 甚히 困難한 문제로 된다. 그래서 個人的인 關係에서는 國家와 民族을 초월하여 어느 程度까지 人道的으로 될 수 있으나 집단적인 國家 關係에서는 더욱 非倫理的으로 되기 쉽다. 말을 하게 된다. 아뭏든 人間에 있어서 文化創造의 어려움보다도 利己主義的인 私慾의 解消가 더욱 어려운 문제로 남는다. 사람의 이기주의적인 關係 때문에 모처럼의 文化가 타락하게 되는 것이다.

× × ×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人間의 非人道的인 利己主義的인 關係를 解消해 나아갈 수 있는 方法이 무엇일까?

첫째로 文化創造의 能力을 高度로 發展시키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文化創造를 最後의 目的으로 삼고 그 能力을 高度化시키면 에고이스틱한 利己主義가 스스로 解除될 수 있을 것으로 深信한 때도 있었다. 그래서 文化的인 自我現實의 極致를 가장 貴한 가치로 여기고 自我實現主義를 絕對化시키기까지에 이르렀다. 그 結果로 利己主義가 解消되기는 커녕 오히려 그럴수록 精神的으로 더욱 傲慢不遜한 「나」로 轉落되어 버렸을 뿐이다.

여기에서 特別히 注意해야 할 點은 文化價値와 文化創造의 能力은 어디까지나 最後的인 目的의 價値가 아니고 人生의 最後目的인 人間의 尊嚴性和 人格價値를 높이 세워주기 위한 手段, 方法, 道具에 不過한 것인 줄을 깨달아, 人間의 自己本位的인 利己主義的인 方向을 새로 獻身·奉仕·協力할 줄 아는 나의 方向으로 바꾸어 나아가지 아니하면 안될 點인 것이다.

둘째로 文化價値와 文化 창조능력을 國際的으로 交流시키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그렇게 하면 國家的인 集團利己主義와 國粹主義的인 排他性和 侵略성을 解除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 結果로 自己 民族文化의 國際的인 進出을 圖謀하는 民族主義者들은 自己 民族文化의 優秀성을 자랑하기 위하여 더욱 國粹主義的인 利己主義的인 傾向으로 흘러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本來 文化라 하는 것은 한 個人이나 한 民族의 特異한 힘에 依하여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모든 個人들과 모든 民族들이 謙虛한 자세로 함께 참여하여 人類的인 大課業을 完遂해 낼 수 있도록 온가지 能力을 發揮하고 규합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인 것이다.

人間의 高貴적인 利己主義와 私利私慾을 解消시킬 수 있는 方法은 個人的으로나 集團的으로나 文化創造의 能力을 最後의 目的으로 錯覺하고 自我의 實現이나 民族文化의 特異성을 最高價値로 높이려는 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人類的인 大課業에 同參하여 謙虛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려는 人間으로서의 「나」의 方向으로 바뀌어지는 일에 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文化 창조활동이 能力爲主로만 치닫지 아니하고 人道的인 關係에서 이룩되는 眞正한 文化創造 活動으로 止揚될 수 있을 것이다.

學問도 그런 關係에서 研究될 때야 有益한 학문으로서의 口實을 다할 수 있고 또 人生의 最後目的인 人間의 존엄한 가치를 높이 세워주기 위한 좋은 힘, 좋은 수단, 좋은 방법 좋은 道具로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